

# 시민 참여예산사업 공모

### 군산시, 시민주도 풀뿌리 자치 실현 일환 주민세 재원... 예산편성 시민참여

군산시가 시민주도의 풀뿌리 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를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게 되며,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대상은 전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차 리창출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 시정분야 ▲읍면동 지역현안 및 주민

통합을 위한 지역특색사업 등 지역분야로 구분되며 단순민원성사업 보조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7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이며 시정분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시민광장플랫폼), 우편 및 방문 접수하고 지역분야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에서 법령·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정분야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와 온라인 투표로 최종 선정되며, 지역분야는 각 읍면동의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시장분야에 최종 선정된 사업 제안자에게는 시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예산편성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공모에, 군산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2022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총 87건의 사업을 선정해, 올해 본예산에 9억7천만원을 반영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학교와 군산사범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6일 군산 은파유원지에 있는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에서 '제71주기 전몰군사학도의용군 추모제'를 올렸다.

## 전몰군사학도의용군 추모제

### 군산대·사범학교 총동문회 은파유원지 현충탑에서 개최

군산대학교와 군산사범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6일 군산 은파유원지에 있는 군산사범학교 학도의용군 현충탑에서 '제71주기 전몰군사학도의용군 추모제'를 올렸다.

추모제는 625 한국전쟁 당시 포항안강만전투에서 산화한 학도의용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추모제에는 군산대 총장 및 보직자, 군산사범학교 동문, 군산대학교 학도후각단, 학생 대표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군산사범학교는 군산대학교의 전신으로 1947년 개교했고, 1965년 군산교육대학교로 개편인가되었다.

곽석선 총장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거의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제 학생들이 사범학교 선배님들의 충심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모했다.

/군산=남현봉기자



## 삼성꿈장학재단, 생명지역아동센터에 축구용품 전달

꾸준하게 지역아동들에게 축구용품을 전달해온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5일 생명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아름)에서 삼성꿈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축구교실 아동들에게 축구용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영일, 축구교실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째 이어온 삼성

꿈장학재단 축구교실은 경포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산S유소년축구단(단장 박영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구교실에서는 축구훈련, 축구용품 지원, 리그 및 대회참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강임준 시장은 "축구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박영국 단장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삼성꿈장학재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 원광대병원 진영주 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 기관절개술 시행한 환자의 사망률·원인에 대한 연구



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주 이뤄지고 있는 수술임에도 수술 후 사망률에 대한 연구는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많은 환자분들이 기관 절개술 후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 된 후 더 이상 병원에 경과관찰을 위해 내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실 환자 중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30일내 사망률은 25~4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관절개술 수술 자체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이미 환자가 기관절개술에 이르게 된 기저질환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원광대병원 이비인후과 진영주 교수 연구팀은, '한국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전국 샘플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기관절개술을 시행 받은 2,384 명의 환자와 이들과 나이, 성별, 수혈, 거주지를 1:4로 매칭시킨 9,536 명의 일반인을 비교하여 기관절개술 시행 받은 환자의 사망률에 대해 규명하였다.

특히 기관절개술 시행한 환자의 사망률은 (Hazard ratio)는 일반인에 비해 14.4배 높게 추정되었으며 기관절개술 시행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흔한 원인은 심혈관계질환, 중앙 호흡기질환 과 외상의 순이었다.

상기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누락된 사망자가 없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기관절개술 논문을 통틀어 가장 큰 참여 환자 수를 비교한 논문으로, 기관절개술 환자의 실제 예후와 사망원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논문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김재훈 기자

## 정현울 익산시장, '시정질문 준비 철저' 지시

정현울 익산시장이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해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7일 오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정 시장은 "오는 9일과 10일 진행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어떤 부

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궁금해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시의회 시정질문은 현재 진행 중인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인 오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까지 11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각 부서별로 답변을 꼼꼼하게 준비 중이다.

정 시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만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과 모험등에 새롭게 마련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현재 참여 농가 외에 다양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주민참여로 신명 나는 도시재생

군산시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 지역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신청받으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의 문제를 직접 검증, 체험, 해결하는 2021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2021 중앙동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일반공모 ▲기획공모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1억5천만 원 규모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 중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등이 높은 순으로 선정, 사업 당 최대 1,000만원(본인부담 10% 이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 전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70-4647-0228)에서 사업 발굴, 사업 상담, 기획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농협, 코로나 극복 조합원 마스크 무료 지원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무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익산농협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마스크(KF80)를 1인당 150매씩 6,350여 조합원에게 95만 2,500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병범 장기화에 따라 2년에 걸쳐 마스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익산농협은 지난해 2억 2천만원 집행하였고 올해는 사업비를 2배 가량 확대해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마스크 납품업체는 세스코의 관리를 받아 클린룸에서 생산하는 유한 킴벌리 크리넥스 제품으로 결정하였고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상황을 고려해 KF80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감염예방은 물론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